

웹소설 〈상수리나무 아래〉를 통해 본 설화 〈내 복에 산다〉 ‘부녀 대립’과 ‘남녀 결연’ 서사의 현재적 의미

김정희*

— <차 례> —

1. 서론
2. 〈내 복에 산다〉의 ‘부녀 대립’과 그 대응으로서 ‘남녀 결연’
3. 〈상수리나무 아래〉의 ‘부녀 대립’과 ‘남녀 결연’ 서사의 현재적 의미
4.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설화 〈내 복에 산다〉와 김수지 작가의 웹소설 〈상수리나무 아래〉의 서사적 상관성을 분석하여 설화의 현대적 계승과 변주 양상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내 복에 산다〉는 ‘부녀 대립’과 ‘남녀 결연’을 골자로 하는 한국의 대표적 고전 서사이다. 이 작품에서는 셋째 딸이 부자 아버지와 대립하며 자립하는 과정이 잠재적 대립-갈등-승리-용서의 구조를 통해 드러난다. ‘잠재적 대립’에서는 딸들에 대한 부자 아버지의 통제력 확인 및 과시가 셋째 딸과 부자 아버지의 갈등의 불씨가 된다. ‘갈등’에서는 부자 아버지의 요구가 가시화되며 이에 대한 셋째 딸의 거부도 전면에서 드러난다. 부녀 갈등은 부자 아버지가 강압적으로 셋째 딸에 대한 통제력을 작동하여 셋째 딸을 강제로 혼인시킴으로써 정점에 달한다. 여기에서 셋째 딸은 남편의 영토로 이주하여 새로운 터를 잡는다. ‘승리’에서는 셋째 딸의 성공과 부자 아버지의 몰락이 나타난다. 이로써 셋째 딸과 남편인 숯구이 총각의 방식이 옳다는 것을 증명한다. ‘용서’에서는 셋째 딸의 아버지 용서하기가 나타난다. 아버지는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셋째 딸은 대가를 치른 아버지를 용서한다.

웹소설 〈상수리나무 아래〉는 설화 〈내 복에 산다〉의 서사 구조 가운데 잠재적

* 한국항공대학교 인문자연학부 강사

대립-갈등-승리의 구조를 공유한다. 설화와 마찬가지로, ‘잠재적 대립’에서 부자 아버지인 크로이소 공작은 두 딸을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대하며, 딸들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을 과시한다. ‘갈등’에서는 셋째 딸에 해당하는 맥시밀리언 크로이소가 아버지 크로이소 공작에 의해 미천하고 가난한 출신의 기사 리프탄과 강제로 결혼하게 되고, 리프탄의 척박한 영토로 이주한다. ‘승리’에서는 그 척박한 영토를 비옥한 영토로 탈바꿈시키는 맥시밀리언과 리프탄의 분투가 나타나며, 그 시도는 성공한다. 리프탄의 영토가 강성해지는 데 비해 아버지 크로이소 공작의 영향력은 축소되고 약해진다. 맥시밀리언은 이 과정에서 리프탄의 대등한 동반자로서 영토 구축에 기여한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와 권력이 없으면 자신만으로는 무능하기만 한 줄 알았던 딸이 결혼을 통해 유능한 지배자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나 두 작품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도 존재한다. <내 복에 산다>에서 셋째 딸은 몰락한 아버지를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지만,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맥시밀리언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러한 작품의 선택은 부당한 부모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를 성장의 완결로 제시하는 현대적 지향을 반영한 변주이다.

이처럼 두 작품의 비교는 설화 <내 복에 산다>의 서사가 오늘날에도 대중적 호소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현대 서사가 이를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적 감수성에 맞게 변주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는 구비설화가 특정 장르 양식에 갇혀 사라진 유산이 아니라, 새로운 매체와 서사 양식을 통해 끊임없이 전승되고 재창조되는 살아 있는 서사임을 확인시켜 준다.

□ <내 복에 산다>, <상수리나무 아래>, 부녀 대립, 남녀 결연, 강제 결혼

1. 서론

설화 <내 복에 산다>는 한국의 대표 설화 가운데 하나이다. 전해지는 각편의 수도, 관련 선행 연구도 많아 문학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짐작케 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특별한 행사나 목적이 아니고는 구비설화가 구연되는 현장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을 상기하면, 구비설화 전승의 맥이 약해진

것만큼 이 중요한 작품의 서사마저 과거에 간혀버린 것 아닐까 우려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부녀 대립'과 '남녀 결연'의 서사가 갖는 원형적 힘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괜한 우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본고는 이러한 문체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주지하듯, <내 복에 산다>는 셋째 딸이 아버지와 대립하다 쫓겨나고, 새로운 관계를 통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 과정은 부녀 대립과 남녀 결연의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셋째 딸은 아버지의 욕망을 대리 실현하는 도구가 되기를 거부하며 아버지와 대립하고, 결국 그 억압으로부터 빠져나와 자신의 욕망과 전망에 충실히 살아가는 삶의 주인으로 거듭난다. 부녀 대립은 셋째 딸이 당면한 문제를 형상화하고, 남녀 결연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셋째 딸은 이 과정에서 지혜와 주도성을 발휘하여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간다. 이와 같은 성장 서사의 구조와 셋째 딸의 지향이 이 작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흐름에 대해 기왕의 연구에서는 가부장제 비판과 여성 주체성의 발현이라는 관점에서 의미화하였다. 이 설화를 “아버지의 딸이기를 거부한 막내딸의 입사기”로 규정하며 아버지에 대한 ‘상징적 살해’를 통한 분리와 사회적 주체로의 성장에 주목하기도 하고¹⁾, 딸의 집나감이 자신의 삶을 세우는 동시에 아집에 빠진 부모를 구원하는 힘이 된다고 해석하기도 하였다.²⁾ 또는 이 설화를 전승하는 여성화자들에 주목하여 ‘탈가부장적 전승 의식’을 읽어내기도 했다.³⁾ 이러한 연구들은 <내 복에 산다>의 서사적 힘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가부장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
- 1) 김영희, 「문화: 아버지의 딸이기를 거부한 막내딸의 입사기(入社記) -구전이야기 <내 복에 산다>를 중심으로-」, 『온지논총』 18, 온지학회, 2008, 379~427쪽.
 - 2) 신동훈, 「구비문학에 나타난 부녀관계의 원형 -‘집 나가는 딸’ 유형의 설화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8, 한국구비문학학회, 2009, 111~132쪽.
 - 3) 임이랑·박수진, 「여성 고난 설화의 연행과 전승에 나타난 탈가부장적 지향」, 『문학교육학』 78, 한국문학교육학회, 2023, 163~192쪽.

로 약화된 오늘날,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저항이라는 서사 구도만으로는 이 설화가 현대 독자에게 주는 울림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해석의 관점을 확장하여 집주인으로서의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환대’의 개념으로 분석하거나⁴⁾, ‘환대’의 근거를 ‘하늘이 부여한 생명력’인 ‘복’에서 찾으며 ‘생생지도’라는 철학적 개념을 도출하기도 하였다.⁵⁾ 이러한 시도들은 가부장제 비판을 넘어서는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 역시 유교적 가부장 이념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어 탈가부장 사회에서 이 작품이 갖는 의의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내 복에 산다>를 현대 웹소설 <상수리나무 아래>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가부장제라는 사회구조적 틀을 넘어 ‘딸의 자아실현’과 ‘자아정체성 확립 과정’이라는 보다 보편적인 서사 원형을 탐구하고자 한다. 막내딸의 “내 복에 산다” 선언은 단순히 아버지의 권위 부정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적 인식의 표명이며, 이후 자신만의 집을 짓고 자기 이름이 울리는 대문을 다는 서사는 외부로부터 부여받은 정체성을 거부하고 스스로 정체성을 구축해나가는 과정으로 읽힐 수 있다. <상수리나무 아래> 역시 타인에 의해 규정된 운명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여성 주인공의 서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유사성을 보인다. 두 작품의 비교를 통해 <내 복에 산다>가 전통사회의 가부장제 비판 서사에 그치지 않고, 시대를 초월하여 유효한 자아정체성 확립 서사의 원형임을 밝히고자 한다.

본고에서 <내 복에 산다>와 비교하려는 작품은 김수지 작가의 웹소설

4) 강지영, 「아버지로부터 내쳐지는 딸과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딸의 의미 모색-〈내 복에 산다〉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75, 한국구비문학학회, 2024, 5~34쪽.

5) 박성지, 「민담 〈내 복에 산다〉에 나타난 복의 의미와 환대의 근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9,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4, 189~230쪽.

〈상수리나무 아래〉이다. 〈상수리나무 아래〉는 웹소설로 발표된 후, 웹툰으로도 각색되어 연재되고 있으며, 이른바 ‘상수리 IP’로 웹 콘텐츠 시장의 인기 IP로 자리매김하였다.⁶⁾ 웹소설의 여러 장르 가운데, 이 작품은 ‘로맨스 판타지’에 속하는데⁷⁾, 공작 영애 맥시밀리언 크로이소와 기사 리프탄 칼립스의 사랑이 서사의 중심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맥시밀리언과 리프탄의 성장은 애정 관계의 성숙과 긴밀하게 맞물리며 이루어진다. 그런데 맥시밀리언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겪게 되는 문제의 원천은 아버지 크로이소 공작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크로이소 공작은 딸 맥시밀리언을 자기 기준에 맞춰 평가하고 못마땅해 하며, 비난한다. 그래서 자기 성의 작은 방 안에 가두고 운신의 폭을 극도로 제한할 뿐 아니라 때때로 맥시밀리언의 부족함을 고쳐야 한다며 폭력을 휘두른다. 맥시밀리언은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이 모두 자신의 부족함 탓이라고 세뇌당한다. 그러나 맥시밀리언은 굴복하지 않는다. 아버지 앞에서면 주눅 들긴 해도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는 빼앗기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 남편 리프탄과 결혼하며 아버지로부터 벗어났을 때,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거듭난다. 못한 딸이 아닌, 자랑스러운 아내가 되는 것이다. 이 성장의 과정은 ‘부녀 대립’과 ‘남녀 결연’의 구조에 기반하며, 맥시밀리언의 주체성을 동력으로 삼는다.

본고에서는 〈내 복에 산다〉의 서사 구조와 인물 특성, 이를 전개하는 데 필요한 서사 설정들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도 발견된다는 데 주목하

6) 김수지, 〈상수리나무 아래〉 총 459화, 로즈엔, 2017.1.17.~2025.4.19.(외전 포함) 웹소설의 본편은 2022년 완결되었고, 웹툰은 현재까지 연재 중이다. ‘상수리 IP’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김정유 기자, “글로벌 1억뷰 ‘로판’ ‘상수리나무 아래’”, 〈이데일리〉, 2025.12.13.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56246642398192>, 접속일자: 2026.01.13.

7) 이 작품은 ‘로맨스 판타지’라는 장르에 속하지만, 본고에서는 이 작품이 얼마나 전형적인 ‘로맨스 판타지’ 작품인가를 밝히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장르적 차원에서 로맨스로서의 특질을 밝히는 연구와는 거리가 있음을 밝혀둔다.

고자 한다. 그리하여 <내 복에 산다>의 서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밝히고, 오늘날에는 어떤 모습으로 향유되고 있는가를 탐색하고자 한다.

<내 복에 산다>는 기억 전략의 일환으로 서사의 ‘핵심’을 은유적으로 응축하여 전달하는 설화 장르의 특성을 갖는다. 그래서 그 내용이 서사 전개에 꼭 필요한 서사 정보를 위주로 짜여있다. 이를테면, 셋째 딸의 외양이나 숯구이 총각의 외양 같은 설정은 중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작품을 구연할 때 대개는 등장 인물의 외양을 굳이 언급하지 않는다. 등장 인물의 외양 정보가 서사 전개의 핵심이 될 경우에만 서사 전개 중에 거론되는데, 이를테면 ‘우렁색시’의 경우에는 색시의 ‘빛’이 나는 외양이 원님의 눈에 띄어 갈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므로 반드시 언급된다. 이처럼 설화에서는 서사의 정체성에 맞게 반드시 전달될 필요가 있는 정보들만이 선별되어 형상화되며, 이는 구술 전승 과정에서의 기억 전략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강제 결혼’과 같은 사건은 <내 복에 산다>의 서사 전개에 꼭 필요한 핵심 설정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내 복에 산다>에 속한 각편들의 동질성을 판단할 때 인물 외양 정보는 변별 기준이 되지 않지만, ‘강제 결혼’과 같은 사건은 이 서사를 다른 서사와 구별 짓는 주요 정보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작품 분석을 통해 이러한 핵심 설정 정보들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이를 중심으로 장르와 양식이 다른 두 작품의 서사적 친연성을 판단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주요 정보의 조합을 통해 서사의 동질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선행 연구에서도 시도된 바 있다. 서대석은 건국 신화에서 조선의 소설에 이르기까지 ‘영웅 서사’의 계보를 살피면서, 작품의 근간에 자리하는 서사적 원형에 입각하여 시대를 초월하는 서사적 계보를 구성하였다.⁸⁾ 이 연구는 시대와 장르가 다른 여러 작품을 비교하여 계보를 엮을 때 서사적 동질성을 판단하는 관점과 방법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본고의 이론적 기초가 된다.

한편 서사의 주요 정보는 내용적 측면에 주목하여 '관계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이는 문학 작품이 어떠한 인간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응 방식을 제시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접근법이다. <내 복에 산다>의 경우, 서사의 핵심 축은 부녀 관계의 갈등에 놓여 있다. 아버지의 물음에 “내 복에 산다”고 답한 딸이 쫓겨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일군 뒤 아버지와 재회하는 구조는 부녀 간의 분리와 화해, 그리고 딸의 독립이라는 관계적 과제를 형상화한 것이다. 이러한 관계론적 관점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서사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본질이 시대를 관통한다고 볼 수 있다면, 서사의 구조와 설정에 담겨 있는 관계의 문제를 포착하여 시대와 장르를 초월한 서사적 친연성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접근은 <내 복에 산다>와 <상수리나무 아래>가 공유하는 서사적 핵심이 단순한 플롯의 유사성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본질적 문제와 그 해결 방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친연성임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내 복에 산다>와 <상수리나무 아래>는 시대와 양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부녀 관계의 갈등을 핵심 축으로 삼으며, 딸이 아버지로부터 독립하여 자기 삶의 주체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다는 점에서 서사적 친연성을 갖는다. 본고는 이 두 작품의 비교 분석을 통해, 부녀 대립 서사가 어떠한 관계론적 문제를 다루며, 시대와 매체를 넘어 어떻게 변주되고 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8) 서대석의 건국 신화에서 조선의 소설에 이르기까지의 '영웅 서사'의 계보를 살핀 논의에서 작품의 근간에 자리하는 서사 원형에 입각하여 시대를 초월하는 서사적 계보를 구현하는 논의의 이론적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대석, 『한국 신화의 역사적 전개』, 『구비문학연구』 5, 한국구비문학학회, 1997, 9~35쪽.

2. <내 복에 산다>의 ‘부녀 대립’과 그 대응으로서 ‘남녀 결연’

설화 <내 복에 산다>의 핵심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⁹⁾

- 9) <내 복에 산다>는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33편이 발견된다. 본고에서는 다른 작품과 결합된 각편은 제외하였다. (1)~(7)번까지의 내용이 나타나는 각편이 12편, (1)~(9)번까지의 내용이 나타나는 각편이 20편, (1)~(7)번까지 나타나고, 뒤에 복수했다는 내용이 덧붙은 각편이 1편이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 (1)~(9)번까지 모두 있는 각편: 최금철(여, 50), <숫 장수 이야기>, 『대계』 2-1, 309~312쪽; 정준탁(남, 66), <쫓겨난 딸과 숫굽는 총각(2)>, 『대계』 8-9, 478~483쪽; 전세권(남, 71), <내 복으로 먹고 산다>, 『대계』 4-6, 134~140쪽; 오영석(남, 72), <사람은 제 복으로 먹고 산다>, 『대계』 4-2, 201~204쪽; 이민호(남, 56), <제 복으로 먹고 사는 이야기>, 『대계』 8-5, 921~924쪽; 고근록(남, 71), <내 덕으로 산다는 김 좌수의 막내딸>, 『대계』 2-8, 465~468쪽; 조석분(여, 76), <내 복으로 살지요(만춘당 일화)>, 『대계』 6-9, 155~158쪽; 김종만(남, 70), <쫓겨난 딸과 숫굽는 총각(1)>, 『대계』 8-9, 477~478쪽; 광서례(여, 76), <자기복에 사는 딸>, 『대계』 6-1, 96~99쪽; 간음전(여, 59), <내 덕에 먹고 산다>, 『대계』 1-3, 294~298쪽; 서보익(남, 76), <자기 복으로 산다>, 『대계』 5-6, 219~222쪽; 최유봉(남, 81), <누구 덕에 사나>, 『대계』 1-4, 851~854쪽; 김영애(여, 75), <제 복으로 사는 막내딸>, 『대계』 7-16, 57~59쪽; 백향화(여, 62), <제 복으로 산다고 한 셋째 딸>, 『대계』 7-10, 617~622쪽; 김예자(여, 63), <제 복으로 먹고 산다는 빛째 딸>, 『대계』 7-18, 176~181쪽; 조일남(남, 76), <내 덕으로 먹고 산다>, 『대계』 6-9, 716~723쪽; 김두리(여, 71), <제 복에 사는 딸>, 『대계』 8-8, 595~597쪽; 성경선(여, 61), <제 복에 사는 딸>, 『대계』 8-4, 53~59쪽; 신을출(여, 78), <나락꽃이 크다고 한 셋째 딸>, 『대계』 7-12, 135~140쪽; 이순희(여, 60), <막내딸과 숫구이 총각>, 『대계』 1-4, 799~801쪽.
- (1)~(7)번까지 있는 각편: 문병수(여, 55), <셋째 딸과 숫쟁이>, 『대계』 8-14, 357~361쪽; 이항훈(남, 71), <내 복에 산다>, 『대계』 1-4, 96~97면; 양진남(여, 56), <내 복으로 먹고 산다>, 『대계』 6-12, 1000~1002쪽; 김분이(여, 82), <제 복으로 사는 막내딸>, 『대계』 7-16, 25~26쪽; 강춘이(여, 62), <내 덕에 먹고 사는 셋째 딸>, 『대계』 2-6, 612~614쪽; 양형희(남, 56), <금덩이 파낸 숫장수>, 『대계』 9-2, 285~288쪽; 이금분(여, 65), <제 복으로 먹고 사는 딸>, 『대계』 7-8, 339~342쪽; 정연옥(여, 87), <자기 복으로 잘 산 사람>, 『대계』 2-5, 122~123쪽; 오수영(여, 68), <누구 덕에 사나>, 『대계』 1-9, 205~209쪽; 김복순(여, 72), <내 복으로 먹고산다>, 『대계』 4-6, 532~538쪽; 황동춘(여, 60), <숫구이 총각과 생금장>, 『대계』 7-8, 1201~1205쪽; 김개봉(남, 70), <바보 온달>, 『대계』 8-14, 186~187쪽.
- (1)~(7)번과 복수가 나타나는 각편: 김미분(여, 61), <숫구이 총각과 생금장>, 『대계』 7-8, 91~93쪽.

- (1) 옛날에 어느 부잣집에 딸 셋이 있었다.
- (2) 하루는 아버지가 큰딸을 불러 누구 덕에 먹고 사느냐고 물었다. 큰딸은 부모님 덕이라고 했다. 아버지가 둘째 딸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고, 둘째 딸 역시 부모님 덕이라고 했다.
- (3) 셋째 딸은 '내 덕에 산다'고 했다.
- (4) 화가 난 아버지는 지나가는 숲장수에게 딸을 데려가라고 했다.
- (5) 셋째 딸은 숲장수를 따라 산골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숲장수와 부부가 되어 살림을 차렸다.
- (6) 어느 날, 셋째 딸이 밥을 해서 이고 남편이 일하는 숲 굽는 곳으로 갔다. 그런데 숲 굽는 곳에 금덩이가 있었다. 셋째 딸은 숲장수에게 금을 팔아 오라고 하였다.
- (7) 숲장수는 금을 팔아 부자가 되었고, 셋째 딸의 부모는 거지가 되었다.
- (8) 부자가 된 셋째 딸은 숲장수에게 거지 잔치를 열자고 했고, 그 거지 잔치에서 거지가 되어 돌아다니는 부모를 발견했다.
- (9) 셋째 딸은 부모님을 모시고 잘 살았다.

'부녀 대립'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서사 구조를 추출해보면 ('잠재적 대립-갈등-승리-용서'의 네 단계를 발견할 수 있다.

우선 (1)~(2)번에서 갈등이 가시화되기 이전에도 셋째 딸은 아버지와 (잠재적) 대립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누구 복에 사느냐'는 아버지의 질문에서 아버지가 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가가 드러난다. 주지하듯, 이 질문은 딸들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삶의 지침을 입력시키려는 의도를 내포한다. 첫째와 둘째의 답을 통해 이 질문의 모범 답안은 '아버지 덕에 산다'라는 것이 드러난다. 아버지가 정해놓은 답을 통해 질문의 의도가 선명해진다. 이 질문은 딸들에게 '아버지 덕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말로 표현할 것을 강제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실행하라는 명령인 것이다. 이로써 딸들은 아버지의 세계에서 자의식을

소거한 채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살아가는 ‘인형’이 된다. 아버지는 딸들에게서 욕망을 포기하게 하며 아버지의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아버지에게 소유되어 있음을 각인시킨다.

이것은 아버지와 딸의 잠재적 대립을 의미한다. 아버지가 질문을 통해 이를 강제하려 한다는 것은, 사실상 딸들이 아버지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 영향력을 확인해야만 한다는 것은 영향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영향력은 딸들이 의지를 가질 때 무용한 것이 된다. 그러나 딸들이 이런 아버지의 세계에 속해 있어야만 할 때, 즉 미숙해서 보호가 필요할 때에는 자신의 뜻대로 살겠다 천명하기 쉽지 않다. 첫째와 둘째는 아버지가 제공하는 울타리 안의 안전한 삶을 선택한 것이다. 갈등이 가시화되지 않았으나, 딸들이 자신의 의지를 아버지의 명령에 우선하게 되면 이 공존은 위태로워진다. 그 가능성이 실현되는 때가 셋째 딸이 ‘내 복에 산다’고 답하는 순간이다.

(3)~(4)번에서는 아버지가 힘으로 억눌러 온 딸의 의지가 비로소 발현되는 순간 벌어지게 되는 ‘갈등’을 다룬다. 딸에게 내려지는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명령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울타리에서 보내는 매일, 매순간 유효한 명령이다. 그러나 셋째 딸은 어느 날, 어제가 지의 복종과는 다른 선택을 한다. 설화에서는 그 계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감추고 있지만, 그 결단의 파급력은 분명하다. 딸은 더 이상 아버지의 욕망 실현 도구로서 쓸모를 입증하며 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딸이 말하는 ‘내 복’은 자기 인생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다.¹⁰⁾

10) 선행 연구에서도 딸이 말하는 ‘내 복’은 아버지를 극복하고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겠다는 의미라는 점에 주목해왔다. 김수연은 황금을 알아보는 능력과 관련되며 관계 속에서 상대의 가치를 발견하는 ‘선업’과 연결된다고 하였고, 박성지는 ‘하늘이 부여한 생명력’과 관련하여 사회의 고정된 경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힘이 된다고 보았으며, 김영희는 아버지에게 종속된 존재임을 부정하는 행위로 아버지 극복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는 셋째 딸이 ‘주인’이 되어 상대를 ‘환대’하는

그러나 이는 더 이상 아버지의 세계에 머물 수 없음을 뜻하기도 한다. 특히 딸이 말하는 '내 복'이 자신이 삶의 주인임을 천명하는 것이라면, 그 삶의 주인으로 행세하던 아버지를 밀어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아버지의 힘이 아무리 강대해도 딸이 주도권을 되찾고자 한다면 아버지는 딸의 주인으로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딸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하려 하지 않고 더욱 강압적으로 그 힘을 행사하려 한다. 그래서 딸을 미친한 신분의 남자와 강제로 결혼시킨다. 아버지의 세계는 비옥하다. 그에 비해 미친한 남자의 세계는 척박하다. 아버지는 아버지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딸을 미친한 남자의 세계로 밀어 넣는다. 이는 딸을 가부장제 질서 아래 속박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다. 또한 딸에 미치는 영향력이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버지와 딸의 대립이 갈등으로 이어지고, 그 갈등이 극적으로 투영된 사건이 '강제 결혼'인 것이다. 그러나 딸에게 아직은 아버지의 강제력을 벗어날 힘은 없으므로 '강제 결혼'은 성립된다. 이는 아버지에 대한 굴복을 뜻하기도 한다. 그리고 '강제 결혼'은 남편의 세계로의 이주를 의미한다. 셋째 딸은 아버지의 세계를 떠나 남편이 터한 자리로 옮겨가게 된 것이다.

아버지의 의도는 딸의 삶을 실패시키는 것이지만, 딸의 삶은 그 뜻대로 '실패되지¹¹⁾' 않는다. 아버지의 심술은 오히려 셋째 딸에게는 자기 세계를 구축할 기회가 된다. (5)~(7)번에서는 셋째 딸이 결국 자신에게 '복'이 있음을 입증하는 데 성공하고, 부자 아버지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결말로 이어지며 주체성을 회복하는 힘이 된다는 강지영의 논의도 있다. 김수연, 「〈내 복에 산다〉의 문학치료적 해석 - '내 복' 연기성과 관계의 선업을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35, 한국문학치료학회, 2015, 7~33쪽; 박성지(2014), 앞의 논문, 189~230쪽; 김영희(2008), 앞의 논문, 379~397쪽; 강지영(2024), 앞의 논문, 5~34쪽.

11) 이 국면에서는 딸의 실패마저도 아버지가 의도하고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에 피동 표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보여준다. 딸의 ‘복’은 딸이 실패하기를 바란 아버지의 의도를 좌절시키며 실현된다.

설화에서는 딸의 성공에 두 가지 주요한 요인을 적시한다. 하나는 ‘감식안’이다.¹²⁾ 셋째 딸은 돌과 황금을 가려내는 ‘안목’을 발휘한다. 이 안목은 셋째 딸 고유의 자질과 재능이다. 숯구이 총각이 바로 앞에 돌과 황금을 두고도 몰랐다는 것은 그 안목이 셋째 딸이 가진 특별한 ‘재능’임을 뜻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남편의 척박한 세계를 비옥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힘이다.

다른 하나는 셋째 딸과 남편의 관계이다. 아버지의 강제로 맺어진 부부의 인연이지만 둘은 서로를 배우자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운명에 기꺼이 따른다. 셋째 딸과 숯구이 총각의 결혼을 원했던 인물은 오로지 아버지뿐이다. 정작 결혼의 당사자인 셋째 딸과 숯구이 총각은 아버지에게 거역할 힘이 없어서 그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셋째 딸과 숯구이 총각은 그 문제 상황이 배우자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이해하는 지혜를 발휘한다. 셋째 딸과 숯구이 총각이 영위하는 부부 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분노는 감지되지 않는다.¹³⁾ 결혼은 아버지의 주관하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결혼 후의 삶은 전적으로 셋째 딸과 숯구이 총각의 태도에 좌우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셋째 딸은 ‘내 복’에 살 것이라고 천명하며, 자기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나가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지만, 결혼에 대한 숯구이 총각의 의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숯구이 총각은 우연히, 그 자신의 미천함으로 말미암아 셋째 딸의 남편

12) 김영희는 이를 앞일을 내다보는 예견력과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결단력이 결합된 지혜로 분석하기도 한다. 김영희(2008), 앞의 논문, 395쪽.

13) 셋째 딸과 숯구이 총각이 다복한 부부 관계를 맺고 있음은 선행 연구에서도 동의되고 있다. 이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김수연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두 사람이 맺는 관계는 ‘선업(善業)’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김수연(2015), 앞의 논문, 16~22쪽.

으로 낙점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솥구이 총각은 셋째 딸이 감식안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셋째 딸이 자신의 세계로 들어서는 것을 허용한다. 이로써 솥구이 총각이 셋째 딸을 대하는 방식은 아버지와 대비된다. 아버지가 셋째 딸을 속박하고 소유하려 하였다면, 솥구이 총각은 셋째 딸이 자신의 역할과 능력을 다하도록 둔다. 셋째 딸이 솥구이 총각의 일터에 발을 들이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를 솥구이 총각의 의도로 본다면, 솥구이 총각이 셋째 딸에게 허락받기를 요구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셋째 딸을 동반자이자 협력자로 대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셋째 딸과 솥구이 총각이 영위하는 부부 관계는 일반적으로 보호하고 보호받는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인 것이다.¹⁴⁾

그리고 부자 아버지는 셋째 딸을 쫓아낸 후, 몰락의 길을 걷는다. 딸을 강제로 결혼시키는 사건은 아버지에게도 전환점이 된다. 부자 아버지의 강한 자기 확신은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경직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부자 아버지와 셋째 딸의 상반된 삶의 방식이 경합하며, 셋째 딸의 방식은 세계를 비옥하게 탈바꿈시키는 데 비해 아버지의 방식은 갈수록 세계를 황폐하게 한다. 비꾸어 말하면, 부자 아버지의 방식이 세상에 통용되던 시기가 지나,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는 비옥한 세계를 유지할 수 없음이 셋째 딸과의 대비를 통해 더욱 극명해진다는 것이다.

셋째 딸과 아버지의 처지가 교차되며, 이 부녀 대결에서 셋째 딸의 승리는 확실해진다. 그리고 셋째 딸의 방식이 아버지와 다름은 이후 자신을 내친 아버지를 '용서'하는 (8)~(9)번의 서사 단락에서 다시 한 번 입증된다. 아버지는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 셋째 딸을 포용하지 못하지만, 셋째 딸은 자신을 내친 아버지를 포용한다. 그런데 이 용서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셋째 딸과 아버지 모두, 이미 역전된 관계의 위상을 통해 아버지가

14) 이를 '환대'의 개념을 적용하여 세계의 '주인'이 되어 상대를 대하는 태도와 관련하여 논의하기도 하였다. 강지영(2024), 앞의 논문, 20~26쪽.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¹⁵⁾ 그러므로 이 ‘용서’의 요건은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아는 것, 그리고 이를 시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⁶⁾

이처럼 〈내 복에 산다〉의 서사를 셋째 딸의 입장에서 아버지와의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파악하면, 대립-갈등-승리-용서의 구조로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간 〈내 복에 산다〉의 선행 연구에서 되풀이 되어 온 바와 같이, 셋째 딸의 승리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힘은 숫구이 총각과의 결혼, 즉 ‘남녀 결연’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¹⁷⁾

이 구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서사 설정과 인물 특성이 포착된다.

첫째, 아버지의 세계에서 셋째 딸은 다른 딸과 비교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아버지는 자신의 뜻에 맞는 딸은 품고,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딸은

15) 김영희는 이를 ‘대문’의 표상을 통해 확인한다. 이에 따르면 여달을 때마다 셋째 딸의 이름을 말하며 세계에 셋째 딸의 존재와 위치를 알리는 ‘대문’은 아버지와 셋째 딸의 ‘역전적 관계’의 표상이 된다. ‘대문’은 셋째 딸이 견지한 삶의 방식이 인정될 만한 것임을 공표함과 동시에 아버지와 딸을 재회하게 하여 성공과 실패가 교차되었다는 것을 확인케 하는 장치가 된다 할 수 있다. 김영희(2008), 앞의 논문, 418~419쪽.

16) 아버지가 지나가다 셋째 딸의 이름을 듣고 운다고 하기도 하는데, 이는 내친 딸을 다시 자기 딸로 인정하는 행위이며, 딸을 내친 것을 후회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아버지가 부자 된 셋째 딸에게 “너는 내 복에 산다.”고 말하는 각편(곽서례)도 있는데, 이는 ‘내 복에 산다’는 셋째 딸의 발언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운다’는 후회의 행위와 같은 맥락에 놓인다고 할 수 있다. 최금철(여, 50), 〈숫 장수 이야기〉, 『대계』 2-1, 309~312쪽; 정준탁(남, 66), 〈쫓겨난 딸과 숫굽는 총각(2)〉, 『대계』 8-9, 478~483쪽; 전세권(남, 71), 〈내 복으로 먹고 산다〉, 『대계』 4-6, 134~140쪽; 오영석(남, 72), 〈사람은 제 복으로 먹고 산다〉, 『대계』 4-2, 201~204쪽; 곽서례(여, 76), 〈자기복에 사는 딸〉, 『대계』 6-1, 96~99쪽.

또는 셋째 딸이 거지가 된 부모를 바로 맞아들이는 각편도 있는데, 부모가 인정 발언을 하지 않더라도 셋째 딸의 세계에 발을 들인다는 것은 적대적 태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역시 과거 청산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17) 〈내 복에 산다〉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음은 선행 연구에서 이미 여러 번 언급되었다. 〈내 복에 산다〉의 논의는 이 구조에 대한 동의의 토대 위에 성립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다만, 이 논문에서 다시금 이 구조를 확인한 것은 서론에서 언급하였듯, 이 구조가 갖는 원형성과 전형성이 오늘날의 작품에도 나타남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친다. 이 물리적 거리감은 딸에 대한 아버지의 심리적 거리에서 기인한다 할 수 있다. 아버지는 자기 말에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로 딸을 버릴지 말지 결정한다. 비교한 후에 딸을 버린다는 것은 그 딸이 더 이상 자신에게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셋째 딸은 아버지로부터 가치 없다고 낙인찍힌 딸인 것이다.

둘째, 아버지가 강제 결혼으로 딸에 대한 지배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딸은 자기 복에 산다고 했음에도 아버지가 강제한 결혼을 거부하지는 못한다. 아버지의 세계에 있을 때 딸은 아버지에게 대적할 힘이 없는 나약한 존재이다. 이는 숲구이 총각도 마찬가지다. 부자 아버지(장인)에게 자신의 의지를 피력할 기회가 갖지 못했음에도 그 결혼을 거부하지 못한다. 셋째 딸과 숲구이 총각 모두 자신의 배우자를 결정하는 문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는 문제에서조차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강제 결혼은 삶의 주도권을 짓밟는 폭압의 정점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셋째 딸과 숲구이 총각의 결혼이 귀천상혼이다. 이 서사에서 전제되고 있는 바는, 고귀함을 가진 딸이 미천한 숲구이 총각과 결혼하면, 딸의 고귀함은 박탈되어 숲구이 총각과 같은 위상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넷째, 그러나 셋째 딸은 숲구이 총각과의 결혼에 실망하지 않고,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셋째 딸은 자신이 말한 '내 복'이 무엇인지 숲구이 총각의 아내로 살아가며 입증해 나간다. 여기에서는 자기 복을 찾으려는 의지와 지혜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셋째 딸의 삶의 경로를 비꾸는 중요한 자질이다. 자신이 가진 복을 찾아내려는 의지와 사물의 쓰임을 꿰뚫는 안목은 인식의 영역이고, 그 값을 제대로 받아내는 것은 실행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딸은 지혜를 가졌을 뿐 아니라 이를 발휘하는 방법에 대한 전망 또한 갖고 있다. 셋째 딸의 안목은 사람에게도 발휘된다. 부자 아버지는 숲구이 총각의 미천함을 보지만, 셋째 딸은 당장의 미천함에 현혹되지 않고, 숲구이 총각의 잠재적 가능성을 포착한다. 셋째 딸이 발견하는

‘금’은 숯구이 총각이 이미 가진 것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에서, 물질적 부이면서 동시에 미처 다 발현하기 전의 가능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셋째 딸은 누군가에 소속된 상태에 놓여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 자립심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와 관계에서는 자기 복에 산다는 선언으로, 숯구이 총각과의 관계에서는 영토 경영에 동반자로 참여하면서 자립심을 발휘한다.

다섯째, 숯구이 총각은 미천해도 자기 일이 있고, 자신만의 일터를 일구고 있다. 비록 그 세계가 비루하여 부자 아버지의 비옥한 세계와 극적인 대비를 이루고, 아버지의 세계에서 숯구이 총각의 세계로 넘어오는 것이 셋째 딸에게 사회적 위상의 격하를 뜻한다 하더라도, 숯구이 총각은 누군가에 소속된 존재가 아닌 자기 영토를 일구는 주체적 존재이다.

여섯째, 셋째 딸과 숯구이 총각은 함께 척박한 영토를 비옥한 영토로 탈바꿈시킨다는 것이다. 숯으로 표상되는 숯구이 총각의 세계는 싱그럽기보다 시커멓고, 투박하다. 이 또한 인간사에 반드시 필요한 일임에 분명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기보다 소멸시키는 데 가깝다. 그러나 셋째 딸의 합류로 숯구이 총각의 영토는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불러들여도 먹여살릴 수 있는 여유롭고 풍족한 영토로 거듭난다. 또한 이는 두 사람의 협업을 통해 실현된다. 숯구이 총각이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셋째 딸은 지혜와 실행 방법을 찾는 것으로 제 역할을 한다.

일곱째, 셋째 딸은 숯구이 총각과의 결연으로 아버지의 세계에서 벗어났고, 나름의 성공도 거두지만, 여전히 아버지와 관계를 의식하며 주시한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몰락해서 예전만큼의 물리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데도 셋째 딸과 숯구이 총각에게 부자 아버지의 존재감은 퇴색되지 않는다. 셋째 딸이 아버지의 영향력을 넘어서는 세를 갖게 되었음에도 지켜본다는 것은 결혼해서 아버지의 세계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아직 성취되지 않은 셋째 딸의 과업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딸은 거지 잔치

를 통해 부자 아버지를 불러들여 자신의 잘못된 판단이 초래한 결과를 직면하게 한다. 그 후 용서를 통해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지만, 아버지에게 자신이 더 이상 그 영향력에 좌우될 정도로 나약하지 않음을 입증해 보이는 단계가 선행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내 복에 산다>의 구조와 관계 및 인물 설정이 웹소설 <상수리나무 아래>와 어떠한 상관성을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상수리나무 아래>의 '부녀 대립'과 '남녀 결연' 서사의 현재적 의미

웹소설 <상수리나무 아래>의 줄거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맥시밀리언 칼립스는 제국 동부를 통치하는 유력 크로이소 공작 가문의 첫째 딸이다. 동생 로제탈이 절세 미인인 것과 달리, 맥시밀리언(이하 맥시)은 공작에게 구박받았다. 미모도 뛰어나지 않았고, 말도 더듬었기 때문이다. 공작은 대외적으로는 딸을 아끼는 체했지만, 맥시를 가둬 두고 실제로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했다.
- (2) 그러던 어느 날, 제국에 드래곤의 등장이라는 큰 재앙이 발생했다. 황제는 크로이소 공작에게 출병을 명했고, 크로이소 공작은 이를 피하기 위해 신흥 무력 세력인 램드라곤 기사단의 단장 리프탄 칼립스를 사위로 선택했다. 둘째 딸은 황가로 시집보낼 계획이었기 때문에, 리프탄에게는 첫째 딸을 시집보냈다. 리프탄은 훗날 외모에 뛰어난 무공을 지녔지만, 평민 출신 기사단장이었다.
- (3) 리프탄은 맥시와 혼인을 올리자마자 드래곤 토벌에 나섰고, 그로부터 3년 후 드래곤 토벌에 성공하여 귀환했다. 공작가에 머무르던 맥시는 리프탄과 함께 리프탄의 영지로 갔다.
- (4) 리프탄의 영지는 남쪽의 낙후된 지역이었다. 리프탄은 영지의 발전을 위

- 해 바쁘게 노력했다. 리프탄은 맥시가 공작가 영애로 살던 때처럼 편안하게 지내길 원했지만, 맥시는 리프탄의 배우자로 ‘함께’ 노력하기를 원했다.
- (5) 맥시는 리프탄 몰래 마법사에게 마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뛰어난 알아도 나름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만의 재능을 발견한 맥시는 이 능력을 더 키워 리프탄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다. 리프탄은 자신의 낮은 신분 때문에 맥시가 고생한다고 여겨 못마땅해했지만, 결국 맥시는 자신의 뜻대로 마법을 배우게 되었다.
- (6) 그러던 어느 날, 절대 악인 몬스터 세력이 대륙을 침략하여 전쟁이 발발했다. 제국에서도 군대를 파견했고, 그 군대에 램드라곤 기사단에 소속되어 리프탄도 출병하게 되었다. 맥시는 리프탄의 반대를 무릅쓰고 험난한 출병길에 따라나섰다.
- (7) 아군의 주둔지는 에틸렌 성이었다. 그리고 전선은 그보다 북쪽에 형성되어 있었다. 리프탄은 맥시를 에틸렌 성에 두고 전선으로 떠났다. 그런데 주력 부대가 떠난 후 에틸렌 성이 공격받았다. 처음부터 적군이 에틸렌 성 탈취를 목표로 연막 작전을 펼친 것이었다. 맥시가 목숨을 걸고 활약한 덕에 적군의 지휘관이 목숨을 잃었고, 에틸렌 성에 주둔하던 아군도 무사할 수 있게 되었다.
- (8) 그러나 맥시는 큰 부상을 입은 탓에 아기를 유산하고 말았다. 리프탄은 워낙 초기라 임신 사실을 몰랐던 맥시에게 이 소식을 감추려 했지만, 맥시의 아버지인 공작이 맥시를 찾아와 이 소식을 알렸다. 그리고 공작은 딸이 이혼당하면 가문의 수치라며 맥시를 강제로 자신의 성으로 데려갔다. 리프탄이 맥시를 못 만나게 해서 이혼을 막으려 한 것이다.
- (9) 리프탄은 맥시를 만나기 위해 공작의 성을 찾아갔지만, 공작은 맥시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맥시를 불러다 매질을 서슴지 않았다. 맥시의 동생 로제탈의 도움으로 성에 들어간 리프탄은 아버지로부터 매질을 당하던 맥시를 발견하고 몹시 화가 나서 공작에게 달려들었다. 뛰어난 무장인 리프탄에게 맞은 공작은 큰 부상을 당했다. 리프탄은 맥시를 데리고 자신의 영지로 돌아갔다.
- (10) 제국의 유력 가문의 수장이었던 공작은 리프탄에게 복수하기 위해 리

프탄의 작위와 영지를 빼앗아야 한다며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했다. 리프탄은 작위와 영지를 버리고 다른 나라로 망명을 계획했지만, 맥시는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리프탄이 노력으로 일군 기사단과 영지를 빼앗기는 것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었고, 이를 막기 위해 마법사로서 교육받기로 결정했다. 그러려면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탑으로 유학 가서 최소 4년 동안은 돌아오지 못했기에 리프탄은 반대했지만, 맥시는 리프탄을 지키기 위해 독단적으로 유학을 결정했다.

(11) 맥시는 유학을 떠난 지 3년 반만에 다시 리프탄의 영지, 아니톨로 돌아올 수 있었다. 영구 귀환은 아니고 특별한 탐색 임무를 수행하면 귀환 시기를 1년 몇 개월 앞당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여정 중에 들른 것이었다. 이를 알게 된 리프탄은 곧바로 맥시의 임무에 합류했다. 물론 리프탄 역시 몬스터 세력의 음모를 감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기사단과 함께 합류한 것이었다.

(12) 그런데 이는 큰 전쟁의 서막이었다. 몬스터 세력이 드래곤을 부활시키려 했기에 대륙의 각국은 다시 연합군을 만들어 이에 대항했다.

(13) 몬스터 세력과 결전을 벌이는데, 이번 전쟁에서 역시 맥시가 마법사로서 큰 활약을 하여 가까스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리프탄또한 드래곤과의 결전에서 승리하여 부활을 저지했다. 맥시의 아버지 크로이소 공작은 그 와중에도 리프탄의 원정길에 물자 지원을 막으며 훼방을 놓았지만, 이미 큰 세력을 갖게 된 리프탄에게 큰 위협이 되지 못했다. 맥시와 리프탄은 아버지 크로이소 공작을 능가할 만큼 큰 세력을 갖게 되었고, 아버지 크로이소 공작은 병을 얻어 세력이 약해졌다. 그리하여 더 이상 맥시와 리프탄의 걸림돌이 될 수 없었다.

(14) 대륙을 구한 리프탄과 맥시는 함께 영지로 돌아가 잘 살았다.

이 작품에서는 크로이소 공작과 그의 딸 맥시, 기사 리프탄 칼립스가 이 작품의 주요 갈등을 형성한다. 우선, 크로이소 공작과 맥시의 대립은 부자 아버지와 셋째 딸의 대립에 비견할 수 있다. 이는 (1)번에 정리한 서

사 단락을 통해 드러난다. 크로이소 공작은 광활한 영지를 다스리는 대영주로 국왕도 무시하지 못할 세를 가진 인물이다. 그리고 두 딸, 맥시와 로제탈을 자기 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여긴다. 그런데 맥시는 말을 더듬는 것을 고치지 못하고 외모가 전형적인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어 크로이소 공작에게 쓸모없는 도구 취급을 받는다. 로제탈은 아름다운 외모와 총명함으로 크로이소 공작이 귀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로제탈은 단지 쓸모가 있어 흠집 나지 않게 하려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로제탈도 겉으로는 크로이소 공작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인다. 로제탈은 크로이소 공작의 딸로서 누리는 부귀영화를 버릴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맥시는 크로이소 공작에게 구박받고 멸시받아 주눅 들어 지내면서도 작은 동물을 보면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맥시는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 앞에서 몸을 움크려 견딜 뿐 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맥시는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벗어날 힘이 없음에도 자신도 뭔가를 해내고 싶다는 마음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 그 마음을 버리지 않은 것이 맥시 나름의 저항인 것이다.

〈내 복에 산다〉에서 부녀의 갈등을 극적으로 표출하는 주요한 사건은 셋째 딸과 숲구이 총각의 강제 결혼인데, 〈상수리〉의 서사 단락 (2)번을 보면, 그와 통하는 사건이 나타난다. 기사 리프탄 칼립스는 무력은 출중하지만 천민 출신이라 공작인 크로이소와는 권력 차이가 극명하다. 그런데 크로이소 공작은 지위가 높은 만큼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그 어떤 위험도 무릅쓰며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크로이소 공작은 사회적 지위와 그가 가진 세로 리프탄을 협박하여 그 책임을 리프탄이 대신 지게 한다. 그리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는 가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맥시와 혼인시킨다. 이 결혼은 크로이소 공작이 오로지 자신의 편의에 따라 결정한 것이므로 리프탄과 맥시에게 선택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크로이소

공작의 명령에 따라 결혼은 성사된다.

그리고 서사 단락 (3)~(14)번은 셋째 딸의 성공기에 비견할 수 있다. 셋째 딸의 성공기가 작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면, 맥시의 성공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확장되어 있다. 맥시는 리프탄을 따라 크로이소 공작의 영지를 떠나 리프탄의 영지로 이주하게 된다. 그리고 맥시는 아버지의 강압에 저항하지 못해 하게 된 강제 결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세계를 떠나 자신만의 고유성을 내보일 기회를 갖게 된다.

크로이소 성에서 맥시는 말 더듬이 공작 영애일 뿐이었다. 크로이소 공작은 욕심에 차지 않는 맥시를 감추어 두고 맥시가 스스로 무엇을 원하고 할 수 있는지 탐색할 기회를 박탈한다. 그러나 리프탄의 영지에서 맥시의 삶은 전적으로 맥시의 몫이 된다. 남편은 맥시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남편은 맥시가 척박한 영토에 살게 된 것이 자신의 탓이라며 자책하지만, 맥시는 남편의 세계를 척박하다 여기지 않는다. 맥시는 안전한 곳에서 남편의 보호만 받으며 시는 삶을 거부한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영토를 탈바꿈시켜 나가기 위해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부지런히 움직인다. 그렇게 맥시는 남편의 세계에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나간다.

맥시의 '성장'은 자신의 바람과 지향에 충실히 살 수 있게 되면서 스스로 이룩해낸 것이다. 맥시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올곧이 서서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예를 들어, 맥시는 남편이 원정길에 오르면 남편의 곁에서 함께 싸우기 위해 마법과 의술을 배운다. 그래서 유능한 마법사가 되어 두 번의 전쟁에 참전하고, 두 전쟁에서 모두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큰 전공을 세운다. 멸망할 뻔한 세계를 구하며 남편 리프탄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다.

맥시의 성장 단계는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타자의 시선을 통한 자기 재발견이다. 맥시는 리프탄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 아버지의 평가가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리프탄이 맥시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는 맥시에게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열어준다. 이 단계에서 맥시는 아직 스스로를 긍정하지 못하지만, 아버지의 규범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두 번째 단계는 능력의 발견과 입증이다. 맥시가 마법을 배우고 자신에게도 재능이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딸이 황금을 알아보는 ‘감식안’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면, 맥시는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여 스스로 그것을 찾아낸다. 이 과정에서 맥시는 아버지가 부여한 ‘무능한 딸’이라는 정체성을 조금씩 벗어나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능동적 선택을 통한 주체성의 확립이다. 에틸렌 성 전투에서의 활약이나 세계탑 유학 결정은 맥시가 더 이상 타인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행동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특히 리프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학을 선택하는 장면은 맥시가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대등한 주체로 서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맥시의 성장은 남편 리프탄의 성장과도 맞물린다. 남편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사이지만 미친한 출신으로 인해 결혼 당시에는 척박하고 작은 영지의 초라한 주인일 뿐이었다. 그러나 여러 전쟁을 거치며 뛰어난 기사로서 세계를 구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또한 리프탄이 영지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맥시와 부부로 살아가는 세월이 쌓일수록 그 세를 불러 공작의 입지에 비견할 만한 세를 형성한다. 리프탄의 영지는 거주민이 별로 없는 척박한 영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터를 잡는 비옥한 영토로 거듭난다.

이는 크로이소 공작의 몰락과 맞물린다. 크로이소는 딸마저도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주춧돌로 삼는, 자기 중심적 인물이다. 그러나 이 방식이 세상에 공공연히 드러낼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이를 딸에

대한 애정으로 교묘하게 포장하여 살아왔지만, 맥시가 리프탄의 아내가 되면서 크로이소 공작의 억압과 폭제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그 대척점에는 리프탄이 있다. 리프탄의 보호는 맥시를 가두지 않는다. 맥시가 자기 일을 하기 위해 탐색 원정을 떠나면 리프탄은 맥시를 호위하며 원하는 장소에 가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한다. 이처럼 맥시를 중심으로 크로이소의 방식과 리프탄의 방식은 경합해 나간다. 그리하여 세상에는 리프탄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주어지게 된다. 크로이소만큼 세를 불린 리프탄은 크로이소 공작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살게 한다. 리프탄의 방식이 맥시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처럼 대중의 마음도 사로잡으면서, 대중은 크로이소 공작을 떠나 리프탄의 세계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다. 리프탄이 보여주는 강함으로 무장한 포용은 맥시를 맥시의 뜻대로 살게 하며 본연의 모습을 찾게 하고, 이는 다시 리프탄의 세계를 비옥하게 하는 힘이 되어 돌아온다. 리프탄과 맥시의 관계는 선순환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

이처럼 <상수리>에서는 맥시가 아버지와의 대립에서 승리하는 과정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내 복>에서는 중요한 서사 단락인 '용서'의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내 복>에서 '용서'는 핵심적 부분이기에 때문에, 이 부분이 공유되지 않는 <상수리>와의 비교가 허술해 보일 수도 있다. 또한 이 밖에도 두 작품을 비교하면, 셋째 딸은 '내 복에 산다'고 선언하며 거침없이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데 비해, 맥시는 끊임없이 주저하고 고민하며 때로 퇴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면서 어렵게 나아간다는 점도 다르다. 그러나 서사의 핵심인 '부녀 대립'과 '남녀 결연'의 구조적 축이 공유되고, 이를 그려내기 위한 서사 설정과 인물 특징에서 여러 공통점들이 포착된다는 점도 눈여겨볼 수 있다. 이처럼 두 작품의 서사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공유되고, 공유되지 않는가를 살펴보면, 바뀌지 않은 부분에서는 서사의 전개에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바뀐 부분에서는 오늘날은 이 서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향유하는

지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두 작품의 비교를 통해, 이 서사는 부녀 대립과 남녀 결연이 중요한 축을 이루지만, 보조적으로 자매 대립 또한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 북>에서 셋째 딸이 다른 딸과 비교되는 것처럼, <상수리>에서 맏시도 동생과 비교된다. 나아가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딸은 수용되고, 아버지에 뜻에 맞지 않는 딸은 거부된다. 이는 자녀를 도구로 대하는 아버지의 방식과 셋째 딸/맏시를 쓸모없고 불필요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데 필요한 서사 요소이다. 아버지 뜻에 따르는 딸이 있음으로 해서 아버지 뜻에 따르지 않는/못하는 딸은 없어도 되는 잉여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자매 대립은 아버지에게 쓸모를 입증해야 존재 가치를 획득하게 되는 아버지 세계의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데 유용한 서사 설정이다.

둘째, 맏시와 리프탄 역시 셋째 딸과 숯구이 총각처럼 강제 결혼을 한다.¹⁸⁾ ‘강제 결혼’은 자녀를 자신의 부산물로 취급하는 아버지의 폭력성을 극단적으로 드러낸다. 그런데 이 사건은 서사에서 아버지의 폭력성을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딸이 아버지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틈을 만드는 중의적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강제 결혼 사건은 이 서사의 전반부에 등장한다. 이 서사의 주안점은 셋째 딸/맏시의 성장에 있기 때문이다. 셋째 딸/맏시는 아버지의 세계에서 벗어나면서 자기 탐색과 발견을 도모할 수 있게 되며,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셋째, 강제 결혼은 숯구이 총각/리프탄이 미천한 신분이기에 이루어진

18) 적어도 현대의 웹콘텐츠에서 부모로 인한 강제 결혼은 단골 소재이다. 그래서 강제 결혼이 <내 북에 산다>의 서사에만 나타나는 특징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은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를 밝히려려면 강제 결혼을 중심으로 여러 서사를 수집하여, 강제 결혼과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의 양상 등을 대조해 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부자 아버지로 인한 강제 결혼과 <내 북에 산다> 서사의 관련성에 천착하여 보려 한다.

다. 셋째 딸처럼 맥시도 출신이 미천한 남자와 혼인하여 사회적 위상이 격하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상황 자체로만 두고 보면, 셋째 딸/맥시에게 몹시 불리해 보이는 결혼이라는 점이 공통적이다.

넷째, 셋째 딸처럼 맥시도 강제로 이루어진 귀천상혼에 실망하기보다 노력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셋째 딸이 말하는 '내 복에 산다'가 결혼 후의 삶을 통해 실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맥시 또한 매순간 스스로 결정한 말과 행동으로 복된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 <상수리>에는 '내 복에 산다'는 선언은 나타나지 않지만, 셋째 딸이 자기 복을 확보해나가는 과정은 맥시의 성장과 겹쳐볼 수 있다.

맥시에게 아버지의 고귀한 신분은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다. 그러나 리프탄과의 관계는 다르다. 셋째 딸이 숯구이 총각에게 그러한 것처럼, 맥시도 리프탄의 미천함에 현혹되어 멀리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 리프탄이 가진 자질과 성품을 빛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리프탄의 아내에 걸맞은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하여 맥시는 영주의 아내로 의무를 다하고, 기사 아내로 전쟁에 함께 나간다. 무엇보다 맥시는 나아지려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남들은 찾지 못한 타개책을 찾아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해낸다. 대표적으로 에틸렌 성에서의 활약을 들 수 있다.¹⁹⁾ 맥시는 큰 규모로 벌어진 전투에서 자기 능력의 효율을 최대치로 발휘하여 전멸의 위기에 처한 아군을 구해낸다. 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그 일을 해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다는 것을 뜻한다.

셋째 딸이 남편 숯구이 총각과 그 세계의 잠재적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처럼, 맥시도 리프탄이 처해 있는 당장의 상황보다 리프탄이 가진 자질과 능력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안목을 갖추고 있다. 또한 남편이 품은 가치

19) 작품에서 맥시가 참전한 첫 번째 전쟁으로, 리프탄이 기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오른 원정길에 몰래 따라가 활약한 사건이다. 줄거리 정리에서 (7)번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를 세상에 실현시키는 데 보탬이 되려는 의지와 지향을 품고 움직인다는 점에서 맥시는 셋째 딸에 비견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맥시는 삶을 통해 자기 복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임을 입증해 나가는 주체적 인물이다. 이 과정에서 남편과 갈등하기도 하지만, 결국 맥시는 리프탄에 소속된 존재가 아니라 리프탄과 뜻을 함께 펼칠 수 있는 대등한 존재로서 위상을 확보한다.

셋째 딸의 “내 복에 산다”는 선언은 설화 안에서 이미 완성된 주체의 목소리로 등장한다. 이 선언이 가능하려면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설화는 그 확신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묻지 않는다. 구술 전승의 압축적 성격상 핵심 서사만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셋째 딸이 처음부터 자기 복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경험을 통해 깨달았는지는 서사 바깥의 영역으로 남는다.

반면 〈상수리나무 아래〉는 이 생략된 영역을 서사의 중심으로 끌어온다. 맥시는 자신에게 복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버지의 부정적 규범을 내면화한 채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리프탄과의 관계, 마법 능력의 발견, 에틸렌 성 전투에서의 활약, 그리고 세계탑 유학이라는 능동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맥시는 단계적으로 자기 가치를 확인해 나간다. 이 과정은 셋째 딸의 선언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역으로 보여주는 서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매체의 형식적 특성에서 비롯되지만, 동시에 현대 독자의 욕망을 반영한다. 오늘날의 독자는 이미 완성된 주체보다 주체가 되어 가는 과정에 공감한다. 자기 가치를 처음부터 확신하는 인물은 동경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자기 가치를 의심하다가 조금씩 발견해 나가는 인물은 동일시의 대상이 된다. 맥시의 서사가 독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자기 복을 선언하는 법’이 아니라 ‘자기 복을 발견해 나가는 법’이다. 이는 동일한 서사 원형이 매체와 시대에 따라 어떻게 확장되고 정교화되는지를 보여준다.

다섯째, 숲구이 총각과 리프탄은 미천한 신분이면서도 자신만의 독립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다. 숲구이 총각에게 숲을 굽는 가마터는 자신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이는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리프탄에게 영지가 있다는 설정과 통한다. 리프탄 역시 기사이자 영주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을 갖추고 있다. 숲구이 총각처럼 리프탄도 누군가의 휘하에서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영역을 일구는 존재이다. 비록 척박한 세계라도, 부부가 거점으로 삼을 수 있는 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두 서사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공간의 존재는 단순한 배경 설정을 넘어 서사적 기능을 수행한다. 설화에서 아버지의 세계로부터 쫓겨난 셋째 딸은 숲구이 총각과의 결연을 통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얻고, 그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부를 일군다. 숲구이 총각의 세계는 단순한 도피처가 아니라 셋째 딸이 아버지의 규범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정체성을 재구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리프탄의 역할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리프탄은 맥시를 물리적으로 아버지의 세계에서 분리시키는 인물이다. 맥시는 결혼 후 아내의 성으로 이동함으로써 공작의 직접적인 통제권에서 벗어나고, 이 물리적 분리는 맥시가 아버지의 부정적 규범을 재검토할 수 있는 심리적 거리를 확보하게 해준다. 아내의 성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맥시는 리프탄과 주변 인물들로부터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대우를 받으며,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평가가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서서히 인식하게 된다.

나아가 리프탄이 공작에게 직접 대항하는 장면은 설화와는 다른 방식의 부녀 관계 청산을 보여준다. 설화에서 셋째 딸은 거지 잔치를 통해 아버지와 재대면하며, 이때 아버지는 딸의 성공을 목도하고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깨닫는다. 대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셋째 딸 자신이며, 숲구이 총각은 이 대면의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 반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는

리프탄이 공작과의 갈등에 직접 개입한다. 리프탄은 맥시를 확대하는 공작에게 물리적으로 맞서고, 공작의 악행을 공론화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그의 몰락을 앞당긴다.

이러한 차이는 맥시와 셋째 딸의 출발점 차이에서 비롯된다. 셋째 딸은 쫓겨나는 순간에도 자기 복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았기에, 스스로 아버지와 대면하여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맥시는 아버지의 부정적 규범을 깊이 내면화한 상태이므로, 처음부터 아버지에게 홀로 맞서기 어렵다. 리프탄의 개입은 이러한 맥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서사적 필연성을 갖는다. 리프탄은 맥시가 아직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아버지와의 대결을 대신 수행함으로써, 맥시가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준다.

그러나 리프탄의 역할이 맥시의 주체성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리프탄이 제공하는 것은 맥시가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과 시간이며, 그 안에서 자기 가치를 발견하고 확인하는 과정은 맥시 자신의 몫으로 남는다. 맥시가 마법 능력을 계발하고, 에틸렌 성 전투에서 활약하며, 리프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계탑 유학을 선택하는 것은 모두 맥시 자신의 결정이다. 리프탄은 숯구이 총각이 셋째 딸에게 자기 복을 실현할 공간을 제공했듯이, 맥시에게 자기 복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 인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두 서사의 남성 인물은 여성 주인공의 주체성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성이 발현될 수 있는 관계적 토대를 형성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여섯째, 셋째 딸과 숯구이 총각이 함께 척박한 터를 비옥한 터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맥시와 리프탄 역시 함께 영지를 살기 좋은 세계로 변화시킨다. 맥시가 합류하기 전까지 리프탄의 영지도 숯구이 총각의 세계처럼 시커멓고 투박하다. 맥시는 존재 자체로 리프탄에게 더 나은 삶을 꿈꾸게 하며, 노력하게 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자기 역할을 수행한다. 그 결과 셋째 딸처럼 맥시도 남편의 영지를 풍요로운 영토로 거듭나게 한다.

일곱째, 셋째 딸이 결혼하여 성공을 거둔 후에 다시 아버지를 찾는 것처럼, 맥시도 성공을 거둔 후 다시 아버지 앞에 서게 된다. 맥시는 남녀 결연을 통해 자기 복이 무엇인지 찾고 그 소명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지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아버지와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아버지와의 문제는 아버지와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남편과의 관계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지만, 셋째 딸이 아버지와 마주하기 전에는, 셋째 딸에게 남겨진 아버지와의 문제는 미해결 상태에 멈추어 있는 것이다. 아버지와의 재대면은 셋째 딸이 비로소 그 관계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진다. 마찬가지로 맥시도 리프탄과 애정을 주고받고 자기 능력과 소명에 따라 살게 된 후에, 다시 아버지를 대면하는 단계에 맞닥뜨린다. 재회는 셋째 딸/맥시가 그간의 삶을 통해 이룬 '자기 복'으로 아버지와의 대립에 종지부를 찍으며 드디어 그 관계를 오롯이 감당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까지 <내 복>의 서사가 <상수리>와 공유하고 있는 지점들에 대해 다루었다. 그러면 <상수리>를 통해 다시금 오늘날의 화두가 된 <내 복>의 서사는 어떠한 현재적 의미를 갖는다 볼 수 있을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상수리>가 많은 부분 <내 복>의 서사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용서' 단락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에서 <내 복>의 서사를 어떻게 재해석하고 있는지 찾아볼 수 있다. <내 복>에서 셋째 딸의 용서는 아버지가 완전히 실패하여 자신의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해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상수리>에서도 아버지 크로이소 공작의 몰락이 그려진다는 점에서 <내 복>과 같지만, 그 과정에서 리프탄이 맥시가 확대당했다는 것을 알고 크로이소 공작에 정면으로 맞서는 내용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리프탄은 맥시를 확대하는 공작에게 물리적으로 맞서고, 공작의 악행

을 공론화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그의 몰락을 앞당긴다. 이 과정에서 맥시는 크로이소 공작의 부당한 방식에 직접 항의하며 리프탄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크로이소 공작을 미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하려는 시도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수리〉가 용서의 서사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내복〉에서 셋째 딸은 거지 잔치를 통해 아버지와 재대면하고, 궁극적으로 용서한다. 이 용서는 단순한 관용의 표현이 아니라 부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한다.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딸은 그러한 아버지를 받아들인다. 설화의 서사적 완결은 이 화해를 통해 이루어지며, 셋째 딸의 성장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러한 구조에서 용서는 딸이 아버지의 세계를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입증한 후 그 세계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상수리〉에서 용서의 부재는 맥시가 아버지와의 관계 자체를 더 이상 자신의 삶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두지 않겠다는 완전한 분리의 성취를 의미한다. 맥시는 리프탄과 함께 아버지의 세계를 물리적으로 이탈했을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아버지를 용서하거나 화해해야 할 대상으로 상정하지 않는다. 크로이소 공작은 서사가 진행될수록 맥시의 삶에서 점차 주변화되며, 맥시의 성장 서사는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향해 나아간다. 작품이 공작의 완전한 몰락이나 맥시와의 최종적 대면을 그리지 않는 것은 맥시에게 아버지가 더 이상 대면하거나 청산해야 할 만큼의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서사적 전략이다.

이러한 차이는 두 서사가 지향하는 종결의 성격이 다름을 드러낸다. 〈내복〉이 아버지를 용서함으로써 딸의 성장을 완결 짓는다면, 〈상수리〉는 아버지를 용서의 대상에서조차 배제함으로써 완전한 독립을 성취한다. 〈내복〉이 부녀 관계의 재구성을 통해 딸의 내적 성장을 위시하는 것을 중심으

로 삼는다면, <상수리>는 그 질서 자체로부터의 이탈을 통해 딸이 자기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점을 보다 부각하고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현대 독자의 감수성 변화를 반영한다. 오늘날의 독자에게 부당한 부모와의 화해는 더 이상 필수적인 서사적 과업이 아니다. 관계의 단절 자체가 정당한 선택일 수 있으며, 용서하지 않는 것이 미성숙의 표지가 아니라 자기 보호의 정당한 방식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 <상수리>가 용서의 서사를 배제한 것은 이러한 현대적 감수성에 조응하는 선택이며, 이를 통해 작품은 설화의 서사 원형을 계승하면서도 그것이 전제하는 가치관을 갱신한다.

이처럼 <상수리>는 <내 복>의 서사와 많은 기반을 공유하면서도, 용서의 문제에서 다른 길을 선택한다. <내 복>의 셋째 딸이 아버지를 용서함으로써 자신의 복을 완성했다면, 맥시는 아버지를 자신의 서사에서 퇴장시킴으로써 자신의 복을 완성한다. 두 방식 모두 딸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서사이지만, 그 경로와 도달점은 각 시대가 요청하는 방식으로 달라진다. <상수리>가 상당한 흥행을 거둔 작품이라는 점에서, 용서 없는 완결이라는 이 새로운 서사 방식이 오늘날의 독자에게 충분히 설득력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내 복>과 <상수리>의 비교는 부녀 대립과 남녀 결연의 문제가 시대를 초월하여 언제나 시의성 있는 문제라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해결 방식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드러낸다.

4.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대표적 구비설화 <내 복에 산다>와 현대 웹소설 <상수리나무 아래>를 비교 분석하여, 전통 설화의 서사 구조가 동시대 대중서사에서 어떻게 계승되고 변주되는지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부녀 대립'

과 ‘남녀 결연’이라는 서사적 원형이 시대와 매체를 초월하여 여전히 유효한 서사적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내 복에 산다〉는 아버지의 억압적 질서에 저항하는 셋째 딸이 강제 결혼을 계기로 아버지의 세계를 벗어나, 남편과의 결연을 통해 자기 삶의 주체로 거듭나는 성장 서사이다. 이 서사는 ‘잠재적 대립-갈등-승리-용서’의 구조로 전개되며, 셋째 딸의 지혜와 주도성, 그리고 숲구이 총각과의 대등한 협력 관계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셋째 딸이 선언하는 ‘내 복에 산다’는 아버지의 소유물이기를 거부하고 자기 운명의 주인임을 천명하는 행위로서, 이후 서사 전개의 방향성을 규정하는 중심축이 된다.

웹소설 〈상수리나무 아래〉 역시 이와 유사한 서사 구조를 공유한다. 주인공 맥시밀리언은 아버지 크로이소 공작에게 도구적 존재로 취급받다가 미천한 출신의 기사 리프탄과 강제 결혼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아버지의 세계를 벗어나 자기 능력을 발견하고 성장해 나간다.

두 작품은 부녀 대립의 양상, 귀천상혼인 강제 결혼, 자매 간 비교를 통한 딸의 소외, 남편과의 협력을 통한 척박한 세계의 변화, 그리고 아버지와의 재대면이라는 서사 설정을 광범위하게 공유한다. 이러한 공통점은 두 작품 간의 서사적 친연성을 입증하며, 〈내 복에 산다〉의 서사 구조가 현대 대중서사에서도 핵심적인 골격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두 작품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 또한 존재한다. 〈내 복에 산다〉에서 셋째 딸은 몰락한 아버지를 거지 잔치에서 재회하고,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후에야 용서와 관계 회복에 이른다. 반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맥시는 아버지의 부당함에 분노를 표출하지만, 용서의 단계로는 나아가지 않는다. 맥시에게 아버지는 더 이상 용서 여부를 고민해야 할 만큼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며, 용서 없이 아버지를 자신의 서사에서 퇴장시키는 것 자체가 맥시의 성장이 도달한 지점이다. 이러한 차이는 현

대 독자에게 관계의 단절 자체가 정당한 선택일 수 있으며,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자기 보호의 정당한 방식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음을 반영한다.

정리하면, 첫째, <내 복에 산다>의 '부녀 대립'과 '남녀 결연' 서사는 여성 주체의 성장과 자기 실현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담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사적 원형은 시대와 매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호소력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상수리나무 아래>는 이 원형적 서사를 계승하면서도 용서를 배제함으로써, 부당한 부모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를 성장의 완결로 제시하는 현대적 변주를 수행한다. 셋째, 두 작품의 비교는 전통 설화가 과거에 고착된 유산이 아니라, 새로운 서사 양식과 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변주되며 동시대적 의미를 획득하는 살아 있는 서사임을 확인시켜 준다.

본 연구는 구비설화와 현대 웹콘텐츠 사이의 서사적 연속성을 관계론적 관점에서 조명함으로써, 서사 연구의 통시적 지평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부녀 대립' 서사를 공유하는 다양한 현대 서사물을 추가로 분석하여, 이 서사적 원형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주되고 있는지를 보다 폭넓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지영, 「아버지로부터 내쳐지는 딸과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딸의 의미 모색 -〈내 복에 산다〉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75, 한국구비문학회, 2024, 5~34쪽.
- 김수연, 「〈내 복에 산다〉의 문학치료적 해석 -‘내 복’ 연기성과 관계의 선업을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35, 한국문학치료학회, 2015, 7~33쪽.
- 김영희, 「“아버지의 딸”이기를 거부한 막내딸의 입사기(入社記) -구전이야기 〈내 복에 산다〉를 중심으로」, 『온지논총』 18, 온지학회, 2008, 379~397쪽.
- 박성지, 「민담 〈내 복에 산다〉에 나타난 복의 의미와 환대의 근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4, 189~230쪽.
- 신동훈, 「구비문학에 나타난 부녀관계의 원형: ‘집 나가는 딸’ 유형의 설화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8, 한국구비문학회, 2009, 111~132쪽.
- 임이랑·박수진, 「여성 고난 설화의 연행과 전승에 나타난 탈가부장적 지향」, 『문학교육학』 78, 한국문학교육학회, 2023, 163~192쪽.

ABSTRACT

'Father-Daughter Conflict' and 'Romantic Union'
as Archetypal Narratives

: Reading the Folktale Living by My Own Fortune
through the Web Novel *Under the Oak Tree*

Kim, Juong-hee

This study analyzes the narr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Korean folktale "I Live by My Own Fortune" and Kim Suji's web novel "Under the Oak Tree" to examine patterns of modern inheritance and variation of traditional folktale narratives. "I Live by My Own Fortune" is a representative classical Korean narrative structured around father-daughter conflict and male-female union. In this tale, the third daughter's process of achieving independence through confrontation with her wealthy father unfolds through a structure of latent conflict, overt conflict, triumph, and forgiveness. In the latent conflict phase, the wealthy father's confirmation and display of control over his daughters plants the seeds of conflict between himself and the third daughter. In the overt conflict phase, the father's demands become explicit, and the third daughter's refusal emerges openly. The father-daughter conflict reaches its climax when the wealthy father coercively exercises his control by forcing the third daughter into marriage. In the triumph phase, the third daughter's success and the wealthy father's downfall are depicted. This triumph belongs to both the third daughter and her husband, the charcoal-burner. In the forgiveness phase, the third daughter forgives her father. The father pays the price for his wrongdoing, and the third daughter forgives him after he has suffered the consequences.

The web novel "Under the Oak Tree" shares the structure of latent conflict, overt conflict, and triumph from the folktale "I Live by My Own Fortune". As in the folktale, during the latent conflict phase, the wealthy

father Duke Croyso treats his two daughters as instruments for fulfilling his own desires and displays his control over them. In the overt conflict phase, Maximillian Croyso, corresponding to the third daughter, is forced by her father Duke Croyso to marry Riftan, a knight of humble and impoverished origins, and relocates to Riftan's barren territory. In the triumph phase, Maximillian and Riftan's struggles to transform the barren territory into a prosperous one are depicted, and their efforts succeed. While Riftan's territory grows powerful, Duke Croyso's influence diminishes and weakens. Throughout this process, Maximillian contributes to building the territory as Riftan's equal partner. The daughter, who believed herself incapable without the wealth and power inherited from her father, transforms through marriage into a competent ruler.

However, significant differences also exist between the two works. In "I Live by My Own Fortune", the third daughter forgives her fallen father and restores their relationship, whereas in "Under the Oak Tree", Maximillian does not forgive her father. This narrative choice reflects a contemporary orientation that presents complete separation from an unjust parent as the fulfillment of personal growth.

Thus, the comparison of these two works demonstrates that the narrative of "I Live by My Own Fortune" maintains its popular appeal today, while also revealing that contemporary narratives do not simply replicate it but vary it according to present-day sensibilities. This confirms that oral folktales are not relics confined to a specific genre form that have disappeared, but living narratives that are continuously transmitted and recreated through new media and narrative forms.

Key Words *Living by My Own Fortune, Under the Oak Tree*, Father-daughter conflict, Romantic union, Forced Marriage

논문투고일: 2026.01.17.

심사완료일: 2026.02.03.

게재확정일: 2026.02.05.